

요즘 대학에서 기독교를 이야기 한다든지, '교회에 가보자'라고 말하면, 아무리 교수라 하더라도 학생들이 외면하고 기피하는 시대이다. 이러한 상황에 '기독교 사상의 이해'라는 교과목을 개설하면, 얼마나 많은 학생이 강의 신청을 할지 걱정이 되었다.

외대에서 '기독교 사상의 이해' 강좌를 2006년부터 지금까지 16년간 강의를 하면서 학생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거나 욕(?)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 오히려 학생들이 다음과 같이 평가를 했다.

정말 알찬 수업이었습니다! 별다른 기대하지 않고 신청한 수업이었는데 마치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어요! 수업이 너무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재밌고 감동이 있는 이야기와 엮어서 설명을 해주셔서 기억에 쑥쑥 들어 왔구요. 교수님께서 너무 센스 있으셔서 웃음도 많이 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준 수업이었어요. 재밌게 듣기만 하다가도 시험기간이 되면 '언제 이렇게 많은 것을 배웠지?' 라고 생각되게 만드는 영양가 있는 수업이었답니다.ㅋ

수업을 듣고 나서 정말 내 삶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대학 교양 강좌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진행하는가를 같이 나누면서, 동료교수와 함께 최선을 다해 수업을 준비하는 방법에 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